

‘DLF 기관제재’ 수위 관심... 우리 등 ‘무효소송’ 수순

금융위, 오늘 최종확정

국회일정 고려... 회의 오전으로 당겨
영업정지 6개월, 수위 낮아질 수도
금감원, 경영진 중징계 함께 통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가 4일 확정된다.

기관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기존 경영진 징계와 함께 통보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각 은행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DLF 불안전판매에



(왼쪽부터)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각사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보통 오후에 열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으로 당겨졌다.

안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다.

앞서 증선위는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금감원의 건의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사태 발생 이후 두 은행의 사후조치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건의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정례회의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낮추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뒀던 점은 부담이다.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금감원은 손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까지 함께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금감원장 전격로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얹히면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하기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중징계에 대한 손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 여부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효력이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려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우리금융은 DLF 제재 확정에 앞서 사내이사 선임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한다. 기존 사내이사는 손 회장 뿐이었다.

앞서 이사회는 중징계에도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기로 했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생명, 업계 첫 UN 지속가능보험원칙 가입

전세계 136개 보험사·유관기관 가입
지속가능경영 핵심과제 설정 주요
그룹 차원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대

신한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선포한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전세계 136개 보험사와 유관기관이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보험사의 운영전략, 리스크관리, 상품·서비스 개발 등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요소를 점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일류신한’ 도약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 주효했다”며 “특히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9월 UN 책임은행원칙(PRB)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금융 리더십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생명은 지난해 7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ISO 14001’을 획득하는 등 사내 모든 업무에 환경을 접목시킨 프로세스를 반영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의 확대를 전자청약, 모바일 앱(App) 스마트창구 등의 활용률을 높이고 고객 접점 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밖에 ▲환경·사회적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그린산업 및 벤처기업 투자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지속가능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에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더 많은 국내 금융사들이 지속가능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농협CEO 7명 사퇴... 대대적 물갈이 예고

김광수 금융지주회장, 연임에 무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추송서 결정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을 포함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7명이 일괄 사퇴했다. 특히 이 행장은 3연임에 성공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대훈 농협은행장과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 박규희 조합감사위원장,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 이상욱 농민신문사 사장, 김위상 농협대학교 총장 등이 전일 사의를 표했다.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연임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금융계열사 중 흥재는 농협생명 대표와 최정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그대로 임기를 이어간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경우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선 NH투자증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정 사장의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이대훈 행장의 경우 지난해 말 농협금융 계열사 CEO로는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업계에선 이 행장이 기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 라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승현 수석 부행장이 행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조만간 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코로나19 검사서 여신취급 제외”

윤석현 금감원장, 은행장들과 간담회
비상지원·관리체계 구축 요청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은행장들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은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산업·신한·SC제일·하나·기업·씨티·수출입·수협·광주·전북·카카오뱅크 등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들

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선의의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과 비상지원·관리체계 구축도 요청했다.

윤 원장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금융지원 효과를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지원 상황과 실적을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은행권에 대해 ‘비울 때 우산을 뺐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왼쪽 첫번째)과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난 26일까지 약 5927억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상미 기자

IBK기업銀 ‘페이고스’ 비대면도 가입 가능

IBK기업은행이 해외 온라인 쇼핑물
입점 기업의 판매대금 결제서비스 ‘페
이고스’의 가입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
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
다.

페이고스는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물에 입점한 수출기업의 판매대금을 결제·정산해주는 플랫폼이다. 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기업과 거래규모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페이고스의 비대면 가입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아마존닷컴 등 마켓플레이스와 API를 연동한 기업이다. API연동이란 쇼핑물 판매내역, PG사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페이고스 플랫폼에

제공·동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게 주요 통화의 최대 80%, 기타 통화 최대 50%의 환율 우대와 외환 관련 국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페이고스로 정산한 기업 중 선착순 100개 기업에 도미노피자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페이고스 비대면 가입 기업 중 API 미연동 기업은 주요 통화 최대 50%, 기타 통화 최대 30%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페이고스 서비스의 가입 채널 확대로 해외온라인 쇼핑물 판매와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